PDF 가이드

겸업금지, 이렇게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 회사에 미리 알릴 때 실전 멘트,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1 우리 회사 취업규칙,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사내 게시판·인트라넷 확인하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사내에 비치할 의무가 있어요. 게시판이나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인사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찾기 어렵다면 인사팀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권리가 있어요.

3. 근로계약서부터 먼저 확인하기

취업규칙 확인이 당장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02 조항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사전 승인 필요형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구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승인 없이 시작하면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신고 의무형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유형이에요.

전면 금지형

예외 없이 겸업을 금지하는 문구예요. 다만 이런 조항이 있어도 실제 적용에서는 본업에 실질적 지장을 줬는지가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항 문구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해요.

03 회사에 미리 알릴 때 예시 멘트

신고 의무형인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진행하는 일이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업 시간이나 업무에는 영향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고, 혹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일이 있어 사전에 여쭤보고자 연락드립니다. 본업과 무관한 분야이고 근무시간과도 겹치지 않는데, 시작하기 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04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했다
- ✓ 겸업금지 조항 원문을 캡처하거나 보관해두었다
- ✓ 근무시간표, 업무 성과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
- ✓ 해고·징계 통보는 서면으로 요청했다
- ✓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를 기록해두었다

05 노무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해당 조항이 담긴 페이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져요.

부업 관련 사실관계 메모

언제부터 어떤 부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겹쳤는지 등을 간단히 정리해두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

통보 문자,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에 도움이 돼요.